





독도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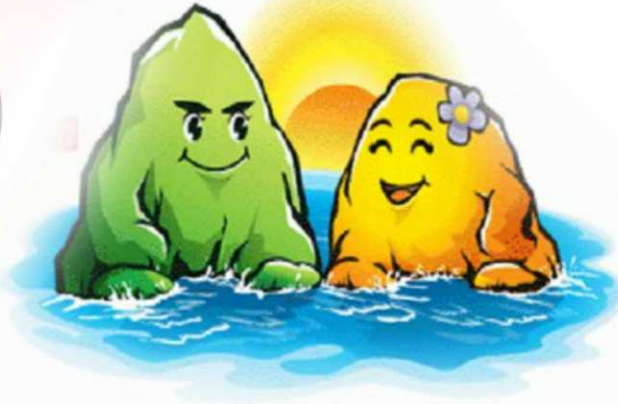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인식하고
일본의 영토주권 훼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정한 달





독도의 달의 의미를 알고 우리 땅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시다.

독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독도의 달에 대해 알아보시다.

경상북도는 2005년 7월 4일 조례를 통하여 10월 한 달을 '독도의 달'로 제정하였습니다. 10월로 정한 이유는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독도를 관할 구역으로 규정한 날이 10월 25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대해 알아보시다.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대한제국 광무 4년) 칙령 제41호를 통하여 울도군(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의 당시 지명인 석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역사를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아봅시다.

- 우리나라의 근거 자료와 내용을 통해 알아보까요?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개의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으며,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에도 막부로부터 서계(조선 시대, 일본 정부와 주고받던 문서)를 받았습니다.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대한 제국 광무 4년) 반포한 칙령 제41호는 울도군(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의 당시 지명인 석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독도의 지킴이 안용복의 활동을 알아봅시다.

• 안용복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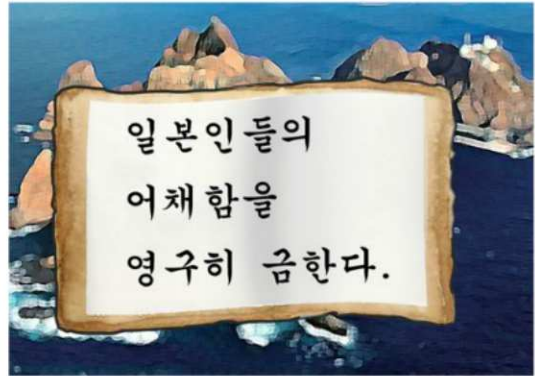
1693년 (숙종19), 어부들과 고기잡이를 하던 안용복은 이곳을 침입한 일본 어민을 힐책하다가 일본으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가서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서계를 받아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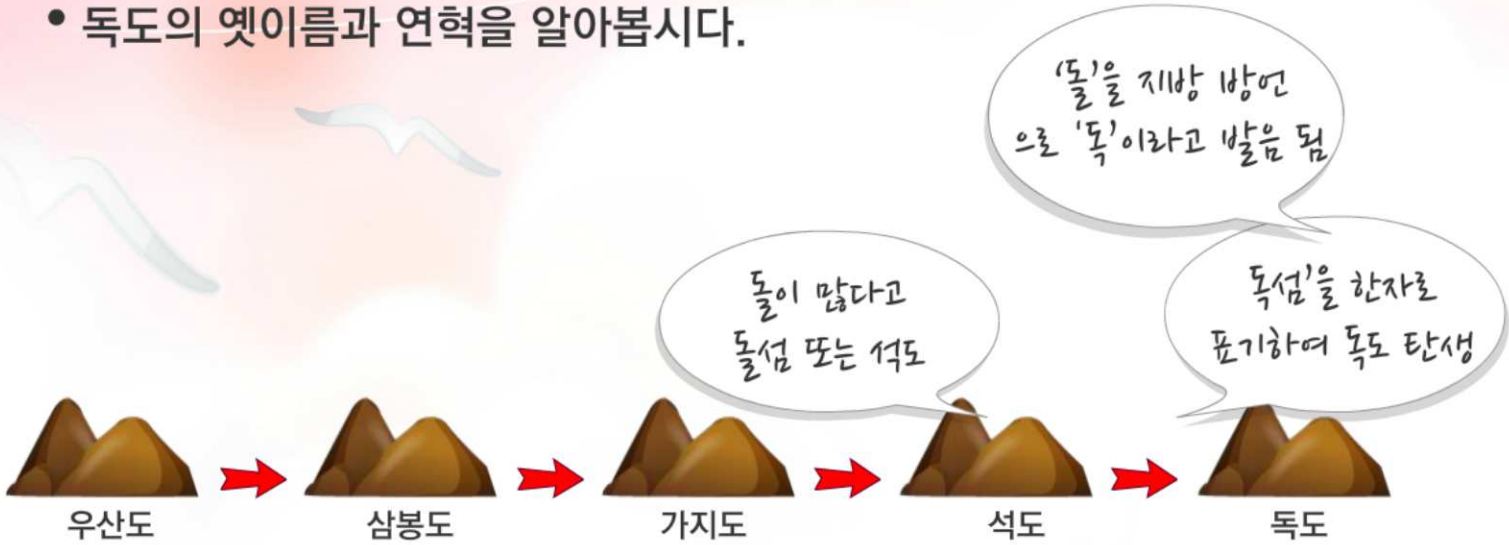
1696년 울릉도에서 어로작업 중 다시 일본어선을 발견하고는 다시 일본으로 가서 톳토리번 태주에게 “대마도주가 지난 번 받은 서계를 탈취하고 중간에 위조하였으며 불법으로 나라의 경계를 넘어왔다. 막부의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묻겠다”고 따졌습니다.



이와 같은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일본 어민이 울릉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독도 이름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시다.

• 독도의 옛이름과 연혁을 알아보시다.



-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복, 신라영토 귀속(삼국사기)
- 1693년 안용복은 일본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서계를 받음(숙종실록)
- 1900년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여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
-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에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
- 1956년 국립경찰 독도경비 인수
- 1981년 독도에 주민등록 최초 전입(최종덕, 울릉읍 도동리 산 67번지)
- 1982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 해조류 번식지)
- 1999년 독도 천연보호구역 지정
- 2014년 동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55 (독도경비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63 (독도 등대)
서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안용복길 3 (주민숙소)

독도의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보시다.

• 독도에는 어떤 새들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독도에는 약 170여 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으며, 팽이갈매기, 바다제비, 습새의 대집단 번식지입니다. 특히 독도는 북쪽과 남쪽을 오가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 상에 있어 다른 설 곳이 없는 철새들의 구원 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 바다제비



▪ 습새



▪ 팽이갈매기



▪ 지빠귀

• 독도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독도에는 현재 50~60여 종 내외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땅채송화, 도깨비쇠고비, 해국 등 대부분 초본이지만 사철나무, 왕호장근, 섬괴불나무, 동백나무, 보리밥나무 등 목본 식물도 자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사철나무는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종으로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섬기린초



▪ 섬초롱꽃



▪ 땅채송화



▪ 독도 사철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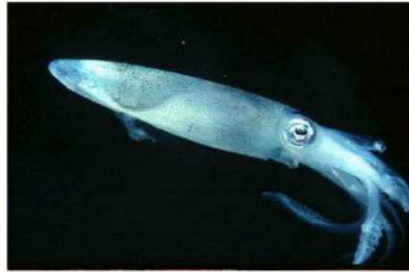


• 독도의 바다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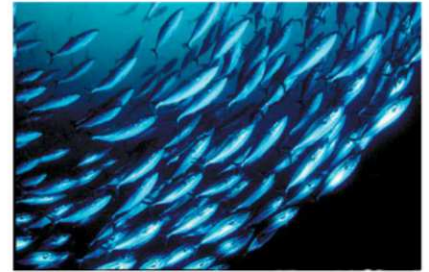
독도 주변 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여 다양한 어종이 모여드는 황금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위마다 미역, 다시마, 파래 등의 해조류가 자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어류로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가자미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복, 소라, 홍합 등의 조개류와 해삼, 새우, 홍게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 미역



▪ 오징어



▪ 방어



▪ 소라



▪ 전복



▪ 해삼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 어린이 사이버 외교관이 되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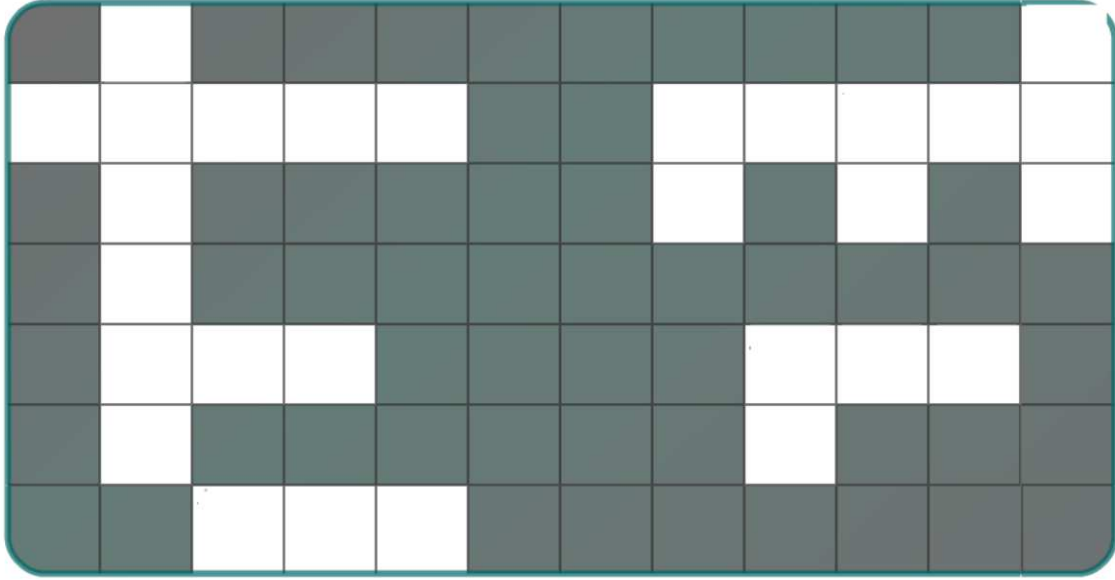
<http://kids.prkorea.com>

• 경상북도 사이버 독도 사이트에 참여해 볼까요?



<http://www.dokdo.go.kr/>

●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낱말 풀이를 해봅시다.



[가로]

1. 갈매깃과의 물새. 이 새의 서식지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독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음.
2.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 자원.
3. 우산국을 신라의 영토로 만든 장군.
4. 동도에 있는 바위로,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닮아서 ()바위라고 부름.
5. 0.1mm 이하의 크기인 미세한 생물로 식품, 의약품 등에 활용됨. 독도는 ()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음.

[세로]

- 가.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 딱딱하게 굳어진 것으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림. 가스()
- 나.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가을이면 독도 해안 바위틈에 가득 피어남.
- 다. 수심이 200m 이상이 되는 깊은 바다.
- 라. 수리과에 속한 맹금류. 물가나 해안, 저수지에 살면서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음.
- 마. 바다에서 서식하는 갈조류. 특히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국을 끓이거나 무침으로 먹음.

